

2016 SEPTEMBER

vol.36

36

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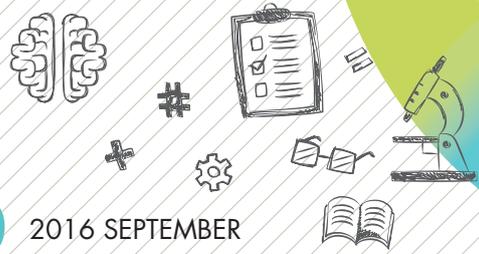
Weekly TIP

Technology • Industry • Policy

알파벳 1년 : 구글은 어떻게 바뀌었나

서덕록 | 융합연구정책센터





알파벳 1년 : 구글은 어떻게 바뀌었나

서덕록 | 융합연구정책센터

선정 배경



- '15년8월 구글의 공동창업자 래리 페이지(Larry Page)는 구글의 지배구조를 바꾸어 알파벳을 지주회사로 구글 등을 자회사로 편입시키는 지배구조의 변경
 - 1998년 설립된 구글은 검색으로 시작하여 인터넷의 성장과 함께 20년 간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 도약
 - 구글은 검색, 모바일 분야에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자동차, IoT, 생명과학 등의 분야에서 가장 혁신적인 도전을 시도하고 있는 기업
 - 인터넷분야를 제외한 사업분야를 구글로부터 분리함으로써 자회사들이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의도
- 이번 위클리팁에서는 지난 1년간 지배구조의 변화를 통해서 구글이 어떤 사업의 변화를 가져왔는지 평가함

26개의 알파벳, 어디까지 채워졌나?



- '15년 8월 지배구조 개편과 함께 출범한 구글의 모회사로 구글(G)과 같은 기업을 A에서 Z까지 채워넣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담아 출범



▲ 그림 1. 알파벳(<http://abc.xyz>)의 홈페이지 : 정보다 없다

- 도전적·모험적 사업을 구글에서 분리하여 회계를 투명하게 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지배구조를 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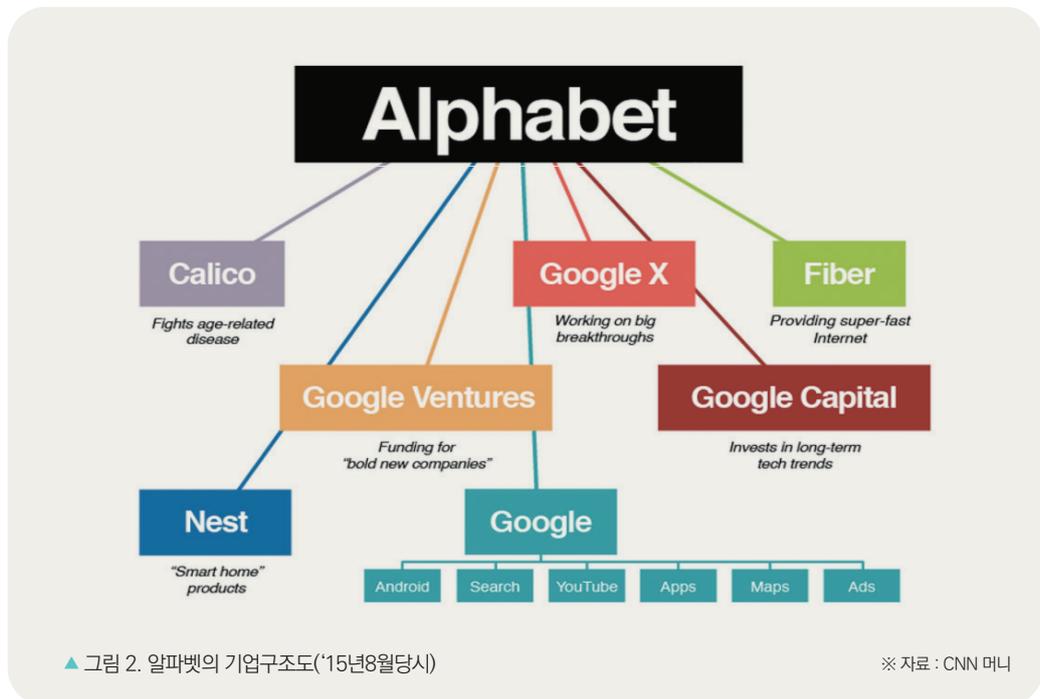
※ 알파벳의 모토는 "Do the right thing(옳은 일을 하라)"과 "Imagine the unimaginable(상상할수 없는 것을 상상하라)"임

래리 페이지는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① 야심찬 도전의 성취 ② 장기적인 시각을 보유 ③ 기업가와 회사들이 성장을 지원 ④ 구글이 보다 큰 규모의 기회와 자원에 투자 ⑤ 구글에 대한 투명성과 감시 능력 향상 ⑥ 집중력을 높임으로써 구글을 훨씬 더 좋게 만드는 것 ⑦ 이 모든 것의 결과를 통해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의 삶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을 표명

● '15년 8월 개편 당시는 구글을 포함 8개의 자회사가 있었으나 직소, 베릴리가 신규로 자회사로 출범하여 현재 10개의 자회사를 확대

- 자회사 중에 실질적인 매출과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은 구글(Google Inc.) 밖에 없으며 나머지 자회사는 미래사업에 집중

※ 전체 매출의 99%가 구글사업부문, 수익의 90% 이상이 구글의 온라인광고사업부문에서 발생



● 주요사업은 여전히 구글사업부문에 소속되어 있지만 안드로이드, 유튜브 등 플랫폼이 다른 사업은 단계적으로 자회사로 독립할 것으로 예상

- '06년 16억 달러로 인수한 유튜브는 한때 높은 플랫폼 유지비용을 감당하지 못하여 실패한 M&A로 평가되었으나, 현재는 구글광고와 연계되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으로 성장

표1. DARPA의 VAPR 프로그램 개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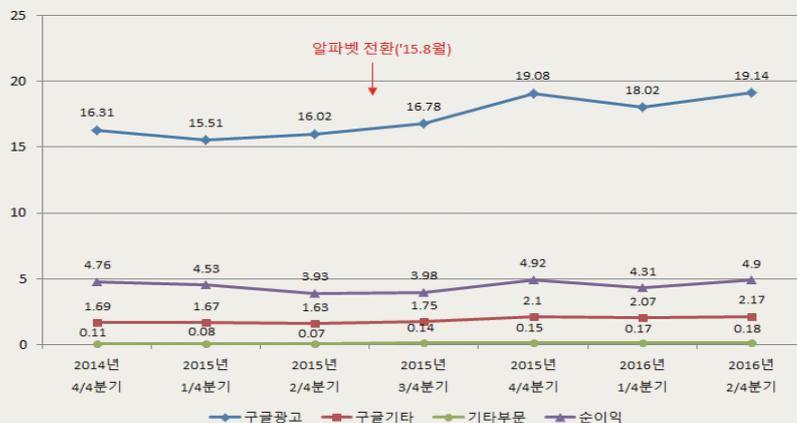
자회사	사업영역
구글	검색, 지도, 유튜브, 안드로이드, 광고, 앱, 메일, 크롬 등
구글 파이버(Google Fiber)	초고속(기가) 인터넷 서비스
구글 벤처스(GV)	벤처 캐피탈, 약 250개 스타업 회사 투자
구글 캐피탈	투자 펀드, 성장회사 20여 개 회사 투자
엑스(X)	자율주행자동차, 프로젝트 룬(Loon) 등 모험연구
네스트 랩스(Nest Labs)	주거자동화, 기계학습기반 자동 온도조절 장치, 화재경보시스템, IoT
칼리코(Calico)	헬스케어, 노화방지, 질병 예방
사이드워크 랩스(Sidewalk Labs)	스마트시티 솔루션, 무료 와이파이 보급, 교통혼잡 해소 등 도시인프라 개선을 위한 기술 개발
베릴리(Verily)	15년12월 생명과학부문 자회사로 출범,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 포도당 감시 스마트 콘택트 렌즈, 저가형 수술로봇 등
직소(Jigsaw)	16년2월 자회사 출범, 디지털 공격과 인터넷 검열에 대한 솔루션 연구, Google Ideas에서 발전

성장하는 실적

알파벳이 출범한지 1년이 된 지난 2/4분기 실적을 살펴보면 매출은 215억 달러(약 24조 20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여 전년동기 대비 21% 증가

- 순이익은 48억 8000만 달러(약 5조 5000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4% 늘어나 양호한 성장세를 실현

(단위: 10억달러)



▲ 그림 3. 알파벳의 부문별 매출과 순이익

- 알파벳의 2015년 연간 매출은 745억 달러이며, 순이익은 234억 달러로 영업이익만으로 삼성전자의 전체 매출과 비슷한 수준
 - 이중 온라인 광고 매출은 191억 달러로 전체 매출의 90%를 점유
 - 광고 외에 클라우드 컴퓨팅 등 기업용 상품이나 구글 플레이의 콘텐츠 등 기타사업의 매출은 33% 증가하였으나, 매출규모는 21억 7000만 달러로 알파벳 전체매출의 10% 수준
 - '기타 사업'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 7400만 달러에서 1억 8500만 달러로 늘어났지만 손실도 6억 6000만 달러에서 8억 5900만 달러로 확대
 - ※ 기타사업에는 네스트 랩스, X 연구소 등 타 자회사에서 수행중인 자율주행 자동차, 스마트 콘택트 렌즈, 인터넷 회선 제공, IoT 기기 등이 모두 포함
- 알파벳의 시가총액은 '16년 2월 한때 5680억 달러(약 640조 원)에 달하여 애플을 제치고 세계 시가총액 1위에 도달하였으며, 현재는 2위
 - '15년 8월 알파벳 출범 이후 구글의 주가는 30%이상 상승

알파벳의 미래산업



-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인터넷(광고)을 발판으로 다양한 미래기술과 산업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알파벳은 출범이후 이를 확대중
 - 구글 연구소(X)에서 진행하는 문샷(Moonshot)* 프로젝트가 대표적
 - * 과거 NASA의 달탐사계획처럼 역사를 바꿀 수 있는 혁신적 프로젝트
 - 프로젝트에 따라 자회사로 분리 또는 사업화 되었으며 현재는 룬(Loon), 자율주행자동차, 마카니(Makani), 윙(Wing) 등이 진행되고 있음

표2. 구글 X의 주요 프로젝트

구분	프로젝트명	사업영역
진행	프로젝트 룬(Project Loon)	성층권의 열기구를 활용한 무선기지국 시스템
	자율주행자동차	빅데이터 기반 지능형, 지속가능형 건물
	마카니(Makani)	유비쿼터스 풍력발전 시스템
	프로젝트 윙(Project Wing)	드론활용 무인배송 시스템
	기타	우주엘리베이터, 로봇(레프리콘트) 등
이관/종료	프로젝트 탱고(Project Tango)	현재는 구글의 첨단기술프로젝트(ATAP)에서 추진중인 공간인지 프로그램
	플럭스(flux)	빅데이터 기반 지능형, 지속가능형 건물

구분	프로젝트명	사업영역
이관/ 종료	구글 브레인(Google Brain)	인공지능과 기계학습을 이용한 인공지능 개발 프로젝트(딥러닝), 구글 연구소로 이관
	프로젝트 인사이트(Project Insight)	실내 네이게이션, 구글 맵으로 이관
	Google Watch	안드로이드와 연동되는 시계, 구글 안드로이드로 이관
	Glass	모바일 컴퓨팅·통신을 제공, 현재는 Aura로 변경되어 Google에 편입
	Gcam	모바일 카메라, 구글 연구소로 이관
	구글 생명과학	스마트 콘택트 렌즈, 나노기술기반 치료제 개발. 베릴리(Verily)로 독립하여 알파벳의 자회사로 편입

- 확인된 구글 X 프로젝트의 운영손실은 거의 1조 원에 달하며 실제로는 4조 원 이상이라는 시장의 예측



▲ 그림 4. 구글X의 자율주행자동차, 룬, 마카니

- 지식재산권에 대한 투자로 확대하여 '15년까지 확보한 8,000여 건의 특허중 4,379건의 특허를 외부에서 매입
 - 이중 4,030건을 최근 3년간 매입하였으며 모토로라 인수후 재매각을 통해 모바일 특허를 다수 확보
 - ※ 모바일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의 특허침해 소송 증가에 따른 방어용 전략이라는 평가
 - 디스플레이, 인공지능, 보안, 스마트카 분야의 특허 매입도 확대

실패도 진행중



- 다양한 인수합병, 투자중에서 하드웨어 분야는 기대만큼을 실적을 나타냈지 못하고 있는 상태
 - 구글이 진행했던 가장 큰 M&A였던 모토로라 모빌리티(이동통신 사업부문)인수는 무려 125억 달러에 매입('11년 8월)하여 직접 휴대폰을 제조한다는 관측을 남겨 삼성, LG 등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제조업체를 긴장시켰으나 결국 2년이 지나 중국 레노버에게 29억 달러에 재매각('14년 1월)
 - ※ 매입, 매각금액에서 알수 있듯이 모토로라 인수는 사실상 실패였으며 다만, 모토로라가 갖고 있던 1만7,000개 특허중 2,000개만 매각하고 1만5,000여 개 특허는 구글이 보유

- 국방분야 로봇전문업체인 보스턴 다이내믹스(Boston Dynamics)를 에 인수('13년 2월)하였으나 구글X 로봇사업부인 레프리컨트로 통합하려 했으나 효과에 대한 논란이 있어 토요타자동차로 재매각('16년 5월)
- 인공지능 기반 홈오토메이션업체인 네스트 랩스(Nest Labs)를 32억 달러에 인수('14년 1월)하였는데 2년이 지난 현재도 매출은 미미하며 스마트 홈프로젝트인 구글홈(Google Home)은 구글에서 직접 진행 중
- 야심차게 시장에 출시하였던 웨어러블 디바이스인 구글 글래스(Google Glass)도 소비자의 혹평과 개인정보침해 논란에 따라 2년이 안되어 시제품 판매단계에서 종료('15년 2월)
- 구글에서 직접 진행하는 첨단기술프로젝트(Advanced Technology Project)의 대표적인 프로젝트였던 모토행 조립식 스마트폰 아라(Ara)도 개발 중단을 발표('16년 9월)
- 하드웨어 사업에서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하여 삼성과는 달리 소프트웨어부문에서만 강점이 있지 하드웨어 제조는 장점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
 - 소프트웨어분야에서도 구글 버즈(Buzz), 구글 웨이브(Wave)는 실패하여 조기종료하였으며 구글플러스, 구글뮤직 등의 서비스도 다른 소셜미디어나 서비스에 비하여 입지가 미미한 형편

시사점



- 사업 재편 이후 검색 및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사업에서는 막강한 영향력과 수익을 지속 창출
- 탄탄한 수익을 기반으로 도전적인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
 - M&A를 통해서 새로운 기술·인력을 유입시켜 추진하거나 자체연구소(구글연구소, ATAP)를 통해 지원
 - IoT, 스마트자동차, 스마트시티 등 생활에 밀접한 디바이스로 연구분야를 확대하고 있으며 완성된 디바이스는 인터넷과 연결하여 성장을 추진
 - 새로운 사업부문이 수익창출에서는 단기적으로 회의적인 시장의 시각
- 한편, 전세계에서 창출한 수익에 대한 조세회피로 문제로 글로벌IT기업의 세금문제에 대한 논의 진행중

※ 공정과세(속칭 구글세 도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

참고자료



- 공영일, 구글카 사업 동향과 전개방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3.3
- 민준홍, M&A로 바라본 구글의 과거?현재?미래, KT경영경영체연구소, 2014.8
- 동아일보, 구글 깜짝 실적...그런데 미래사업은?, <http://www.dongascience.com/news/view/13240>
- 지디넷, 구글은 왜 지주회사 '알파벳' 만들까,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le_id=20150811085913
- 알파벳, <http://abc.xyz>
- 위키피디아 알파벳, http://en.wikipedia.org/wiki/Alphabet_Inc.